

## 방재대책 근본부터 세우자



### 낙산사 화재 계기 '비상대처 시스템' 마련 절실 여론



▲4월 6일 낙산사 화재 현장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단원들이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양양=고영배 기자

◀갯머리로 변한 낙산사와 그 주변 숲. 간신히 화를 면한 흥련암과 해수관음상이 그나마 다행스럽다.

양양 낙산사(주지 정법) 화재를 계기로 사찰 방재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낙산사에 화재가 났던 것은 4월 4일 오후 3시 경. 월기 14대, 소방차량 70여대, 진화장비 1500여점, 진화인력 4250명이 동원됐지만 강한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번진 불길은 순식간에 낙산사를 삼켜버렸다. 그 결과 총 40동 중 21동이 전소됐고 300여대가 넘는 피해액을 남겼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물 제 479호 동종은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녹았다. 지방유형문화재 제33호 흥예문을 비롯 원통보전, 무설전, 종각, 조계문, 흥련암 요사채, 근행당, 해수관음상 요사채, 의상대 휴게소 등도 전소됐다. 보물 제499호 7층 석탑도 표면의 그을림과 일부 발락현상이 발생했으며, 사찰탑 총 30만평 중 3분의 2가 화재에 큰 생채기를 입었다. 이처럼 목조 건축물이 많은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전 방재 대책을 마련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즉 재난에 대비한 유물 대피 요령이나 보호 지침과 같은 방재(防災) 매뉴얼이 수립돼 있었다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또 전각 주변 나무를 벌목해 주변 임목이 쓰러지더라도 전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주요 문화재 보유 사찰에 소방서 분소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방방재청 방호담당 김영석 씨는 "특히 사찰과 문화재청, 해당 소방관서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주기적인 합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재 시스템과 비상시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모형설치, 보험 가입, 문화재 실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1990년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방범 방화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조계종 총무원도 4월 7일 산불화재시 전각에 옮겨 불지 않도록 전각 주변 나무를 벌목하는 사찰 방화선 확립과 세계 유명 박물관처럼 유사시 문화재를 대피 시설 방화벽(피난창고) 설치, 문화재청 내 문화재 재난 대책반 구성 운용 및 매뉴얼 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은 사찰과 문화재청, 소방서, 경찰서 등 문화재 긴급구조를 위한 관계기관 연계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화재에 취약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2·3·15면 남동우·박익순 기자

### 본사 달라이 라마 日 방문 '단독촬영'

전일정 동행 취재... 붓다뉴스 실시간 보도



4월 8일 오전 9시 30분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달라이 라마가 환영객들에 둘러싸여 차에 탑승하고 있다.

현대불교가 4월 8일부터 19일까지로 계획된 달라이 라마 방일 일정의 공식촬영팀으로 선정돼 취재에 들어갔다. 본사 취재팀은 6일 일본 도쿄의 달라이라마 법왕 동아시아대표부에서 조별 필즈 체렁 대사와 회의를 갖고 '본사의 달라이라마 공식촬영팀 확인 및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불교는 달라이라마 방일 주요일정 촬영을 허가받고, 촬영이 끝난 후 그 결과물(비디오, 오디오, 출판물)에 대해 한국내 독점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달라이 라마는 8일 오전 9시 30분 취재진과 불자 등 100여 명의 환영을 받으며 나리타공항에 도착, 이날 오후 3시 메이지 신사를 방문

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달라이 라마의 일정은 붓다뉴스(buddhanews.com)에서 실시간 보도된다.

글·사진/일본 도쿄=한상희 기자

사령	
위영란	총 편집국장
이경숙	총 편집부국장
임연태	총 편집부장 겸 취재부장
4월 1일자	

### 사 고 제3회 '불교와 사회' 토론광장 안내

'문명전환기, 한반도의...' 주제 19일 프레스센터

본사와 불교지식인연대가 '문명 전환기, 한반도의 고뇌와 희망'을 주제로 제 3회 '불교와 사회' 토론광장을 엮는다. 문명사적 혼미를 딛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토론광장에는 문명비평가 유현식 씨가 '새로운 인간상의 구현과 신문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찬훈 인제대 교수와 김규철 前 불교방송 사장이 각각 '불이사상과 21세기 한반도' '복합 시대, 인간 존엄의 사회철학적 기초'를 주제로 발표한다.

- 일시: 4월 19일(화) 오후 2시~6시
- 장소: 프레스센터(인문회관) 19층 기자회견장
- 문의: (02) 722-4162-3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불교지식인연대
- 주관: 21세기 화쟁사상연구회
- 후원: 불교방송, 한국대학불교연합회 총동문회

### 알 림 책방 '여시아문' 당분간 휴점

25일까지 영업... 인터넷·통신판매 계속

1994년 8월 개점 이후 불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온 책방 여시아문이 본사 사옥이전과 건물신축 관계로 부득이 당분간 휴점 합니다. 그러나 www.yosiamun.com을 통한 인터넷 판매와 통신판매(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로 불자 여러분을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건이 마련되어 책방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범주: 무여 스님 / 4월 16일 오후 2시 범어사

### '할' 깃발이 움직이느냐 바람이 움직이느냐

움직이는것은 마음이니라... 쉬엄말 같지만 무서운소리조

그림·조태호

현산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

## 桐華寺 대웅전 출현 삼존불 진신사리 친견 및 복장물 전시대법회

동화사 삼존불 복장물 봉안 및 점안식 시주 동참방법

고대로 복장물을 봉안하는 것은 "삼세의 불보살님을 예경·찬탄하는 것과 같은 공덕을 지니며 세세생생 복락의 인연을 맺는 수승한 일"로 여겼습니다. 봉안 이후 처음으로 공개되는 부처님 진신사리 및 복장물 봉안법회에 동참하시어 모두가 대원(大願)을 성취하는 큰 복연을 지어주시길 바랍니다.

- 삼존불(석가모니불,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후령통 복장물 설판: 각 1천만원
- 금니·은니 사경: 각 1천만원 ● 경전: 권당 10만원
- 반야심경 사경: 한가족당 10만원
- 경판 인경체험 사경: 한가족당 10만원
- 삼존불 출현 복장물 다리니: 한가족당 10만원

◆ 동일기원대전에 특별사경실을 마련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동참하신 복장물은 회향식 때 삼존불에 봉안되어 세세생생을 잇는 복연이 됩니다.

복장물은 불상이나 탱화가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으로 동화사 대웅전 삼존불 진신사리를 비롯한 복장물은 조선 영조 3년(1727) 대웅전 상량과 함께 납입한 것입니다.

- 조선(1727년) / 높이 9.7cm
- 후령통 내부 일괄 조선(1727년)
- 상지은니무상의경 권어 고려(14세기) / 11.5×31.0cm

전시기간: 불기 2549(2005)년 4월 12일(음 3월 4일) 화요일 ~ 9월 3일(음 7월 30일) 토요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특별전시실

개관식: 2005년 4월 12일(음 3월 4일) 오전 10시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고려시대 사경 재현법회: 2005년 4월 12일(음 3월 4일) 오후 2시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회향법회: 동화사 삼존불 복장물 봉안 및 점안식  
 2005년 9월 3일(음 7월 30일) 오전 10시 동화사 대웅전

대한불교조계종 제 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대구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2-0101~2